

이 어려와 감격에 눈시울 젖어든다.

오랜 세월 인적드문 천고의 밀림이 오늘은 온 세상이 다 알고 누구나 즐겨 찾는 문화정서생활 기지로 그 이름 떨치게 되었다.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수 있는 일류급의 마식령 스키장.

정녕 이곳은 우리 인민에게 세상에서 제일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 끊임없는 로고와 헌신을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이 안아온 문명의 보금자리이다.

품들여 찾아낸 명당자리에

과학기술의 발전은 그 담당자인 과학기술인재를 어떻게 품들여 키우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경제강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갈 원대한 구상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과학자들의 사업과 생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온갖 뜨거운 사랑

과 은정을 베풀어주신다.

주체103(2014)년 1월 중순 어느날이였다.

이른아침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국가 과학원을 찾아주시었다.

일군들이 올리는 새해인사를 받으시고 오랜 시간에 걸쳐 과학원의 여러 단위를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과학연구사업을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는데서 치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인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지난해 은하과학자거리를 일떠세운 것처럼 당에서 국가과학원이 자리잡고있는 은정 과학지구에 올해 당창건기념일까지 현대적인 과학자거리를 일떠세워주시겠다고 정담아 말씀하시였다.

과학자들에 대한 사랑과 정이 넘치는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는 일군들의 눈굽은 젖어들었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들의 연구사업 조건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신 다

음에야 국가과학원을 떠나시였다.

사랑을 안고오시여 과학자들에게 통채로 안겨 주시고도 떠나실 때에는 못다 준 사랑이 있으신듯 선뜻 걸음을 폐지 못하시는 그이를 바래워 드리며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은정이 얼마나 뜨겁고 웅심깊은것인지 다는 몰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가과학원에 대한 현지지도를 마치시는 그길로 과학자휴양소터전을 잡아주시기 위해 렐차에 올라 연풍호로 향하시였다.

열차에서 내리시여 다시 승용차로 달리시던 그이께서는 흙먼지가 날리는 어느 험한 갈림길에서 차를 세우게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친히 가지고 오신 문건철에서 지도를 꺼내 펼쳐보시면서 운전수에게 지름길을 가리켜주시였다.

그이께서 가리켜주신 길을 따라 달리던 승용차가 얼마후 어느 한곳에서 멈춰섰다.

차에서 내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고나서 앞장에서 걸음을 옮기시였다.

뒤이어 차에서 내리던 일군들은 그만 깜짝 놀라 그 자리에 굳어졌다.

그이께서 타고 오신 승용차에 먼지가 뿐양게 올라 차색같은 물론 차창도 분간할수 없는데다가 그이께서 걸음을 옮기실 때마다 그이의 바지 가랭이와 신발이 온통 흙먼지투성이로 되었던것이다.

과학자들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그이의 불같은 열정에 감복되어 일군들은 저도 모르게 그이의 뒤를 따랐다.

멀리서 연풍호의 모습이 시야에 안겨왔다.

가랑잎들이 수북이 깔려있는 땅우에는 군데군데 녹지 않은 얼음과 눈이 쌓여있을뿐 아무리 살펴봐야 오솔길은 흔적도 없었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이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몸소 앞장에서 길도 없는 잡판목숲속을 헤치시며 길 아닌 길을 따라 걸음을 다그치시였다.

길을 재촉하시는 그이를 따라 호수가로 다가갈 수록 일군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수려한 자연풍치에 넋을 잃은듯 주변을 둘러보고 또 보았다.

시원하게 펼쳐진 연풍호의 겨울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였다.

해빛을 받아 령롱한 빛을 뿌리는 무연한 호수가의 얼음은 은빛세계를 펼친듯 하였고 저 멀리 호수가 맞은켠에는 연풍호소년단야영소가 한폭의 그림처럼 바라보였다.

연풍호는 해방직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물에 대한 우리 인민의 숙망을 풀어주시려고 마련해주신 관개용호수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이름을 지어주신 연풍호는 숲이 무성한 야산들에 둘러싸여있어 그 야말로 공기좋고 경치좋은 풍치수려한 아늑한 곳이다.

호수에는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살고있으며 물자원 또한 풍부하여 해수욕과 낚시질, 유람을 비롯한 휴식과 운동을 마음껏 할수 있는 리상적인 문화휴식터이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경치좋은 이곳에 연풍호소년단야영소와 료양소, 정양소를 비롯한 인민의 문화휴식터들을 훌륭히 꾸려 아이들과 인민들이 마음껏 휴식할수 있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바로 이런 경치좋은 곳에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과학자들을 위한 세상에 둘도 없는 훌륭한 휴양소를 마련해주시려고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시는것이 아닌가.

이윽고 호수가에 이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변을 다시한번 살펴보신 다음 결음을 멈추시였다.

드디여 목적한 곳에 다달은것이였다.

그이께서는 흐뭇한 시선으로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내가 오늘 국가과학원 원장을 연풍호에 데리고 온것은 과학자휴양소를 건설할 자리를 보여주기 위해서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자리가 마음에 드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수풀에 가리우고 묻혀 그 누구도 눈여겨보지 못했고 무심히 스쳐지나던 바로 이곳이 이렇듯

좋은 자리일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호수가와 잇닿은 나지막한 등성이의 그 자리
는 마치 세월의 눈비바람이 성의껏 쓸고 다듬으
며 귀중한 그 누구를 기다려 아껴두었던 명당자
리인듯 하였다.

과학자들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사랑과 헌신에 머리숙여 자연도 자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펼쳐보이는가.

일군들은 저마다 정말 명당자리라고, 정말 고
맙다고 감격에 겨워 말씀올렸다.

격정에 넘쳐있는 일군들을 정겹게 바라보시며
그이께서는 가지고 오신 문건철에서 과학자휴양
소형성안을 꺼내드시였다.

그러시고는 형성안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며
자신께서 과학자휴양소를 건설할 자리를 잡아주
려고 지난해 여름에 두번이나 연풍호에 와서 배
를 타고 호수주변을 다 돌아보았다고, 그렇게 하
여 이 자리를 찾아냈다고 나직이 말씀하시는것
이였다.

순간 그이의 주위에 모여선 모두의 심장이

쿵— 하며 세차게 울렸다.

나라일을 돌보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과학자들을 위해 천금 같은 시간을 내시여 이토록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치고 계신 줄 그 누가 알았으랴.

연풍호기슭에서도 제일 좋은 명당자리를 찾기 위해 그이께서 얼마나 많은 품을 들이며 애쓰시고 크나큰 노력을 기울이시였는지 그들은 다는 알수 없었다.

주체102(2013)년 5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설계부문의 한 일군을 몸가까이 부르시였다.

원수님께서는 그 일군에게 연풍호일대에 휴양소를 지어주어 과학자들이 리용하도록 할데 대하여 은정깊은 말씀을 주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에게 현지료해를 하고 설계안을 작성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고 현지료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이 지구의 랙도와 위치도까지 친히 내려보내주시였다.

그후에도 여러차례나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자신께서 몸소 두차례나 현지에 나가 직접 배

를 타고 돌아보시면서 풍치수려한 연풍호기슭의 경치좋은 곳에 휴양소터전을 잡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 또다시 그 위치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시기 위해 이곳을 찾으시였던것이다.

그이께서는 감동에 젖어있는 일군들에게 연풍호기슭의 이 자리가 과학자휴양소자리로서는 명당자리라고 하시며 여름철에 이곳에 와보니 공기도 좋고 숲이 무성하여 풍치가 정말 멋있었다고, 오늘 보니 겨울철풍경도 그에 못지 않게 멋있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풍치수려한 명당자리에 드디여 과학자휴양소를 마련해주게 된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기쁨을 금치 못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과학자들을 위하시는 그이의 뜨거운 사랑과 진정에 목메여 일군들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과학자들도 많다.

하지만 그 어느 나라 과학자들도 우리의 과학자들처럼 령도자의 세심한 관심과 보살핌속에서 특전특혜를 받아안으며 행복한 생활을 누려보지

못했을것이다.

그이께서는 계속하시여 과학자들에게 충분히 휴식할수 있는 조건을 다 마련해주면 그들이 과학연구사업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둘것이라고, 그래서 이번에 당에서 대원수님들의 령도업적이 깃 들어있고 경치가 좋은 연풍호기슭에 세상에 없는 최상급의 과학자휴양소를 건설해주려고 결심 하였다고, 우리는 과학자들을 위한 모든것을 다 최상의 수준에서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정녕 그이의 말씀은 과학자들에 대한 최상최대의 믿음과 사랑이 담겨진 친어버이의 따뜻한 진정 이였다.

이렇듯 품들여 휴양소의 터전을 잡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후에도 건설정형을 세심히 지도해주시며 휴양소를 세상에 들도 없는 희한한 궁전으로, 우리 과학자들에게 안겨줄 사랑의 금방석으로 훌륭히 일떠세우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주체103(2014)년

10월 완공된 연풍과학자휴양소를 찾으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마중나온 일군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배를 타고 오면서 바라보니 연풍과학자휴양소가 한폭의 그림같았다고, 자신께서 그려본 황홀하고 희한한 선경이 실물로 펼쳐졌다고, 울창한 수림속에 솟아오른 절경이라고, 짧은 기간에 이곳이 천지개벽되였다고 거듭 만족해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풍과학자휴양소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당에서 우리의 과학자들을 위해 마련한 금방석이라고 하시면서 과학자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휴식하며 쌓였던 피로를 풀면서 사회주의만복을 누리도록 할데 대하여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금방석!

이 부름은 우리 과학자들을 제일 아끼고 내세워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심정이 그대로 응축된 사랑어린 부름이다.

하기에 그이의 끝없는 사랑과 믿음속에 오늘 우리 과학자들은 사회주의만복을 마음껏 누리며

온 세상에 대고 소리높이 웨친다.

《과학자들의 존엄이 돈에 의해 룽락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현실이 우리앞에 펼쳐졌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금방석에 우리 과학자들을 앉혀주는 위대한 어머니당이 있어 우리는 부러운것이 없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통채로 내여준 명당자리에

그 어느 나라의 군력사를 더듬어보아도 전투임무수행이나 군사전략상필요로 임의의 지역이나 대상이 군사기지로 넘어간 실례는 허다하지만 반대로 군사기지를 인민들의 복리를 위해 내준 기록은 아직까지 없었다.

설사 그것이 세상에 둘도 없는 명승지라 할지라도 나라의 방위와 군사를 위해서는 서슴없이 복종시키는것이 하나의 절대적인 공식으로 되여왔다.